

업계소식

주원산오리



18년 만에 BI 변경 “글로벌 진출 강화”



주원산오리
Joowon

주원산오리가 18년 만에 브랜드를 교체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주원산오리의 새 브랜드(Brand Identity)는 2002년 주원농산을 인수한 이후 사용해온 노란색, 녹색, 한자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역동적인 붉은색 서체 형태로 변신을 꾀했다. 특히 붉은색 대문자 J는 젊은 연령층까지 오리고기가 대중적으로 사랑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역동적이면서 간결한 새 브랜드는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최고로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겠다는 주원산오리의 확고한 신념을 형상화했다. 한편 주원산오리는 2012년 기술수출과 상표 제휴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등 건강하고 신선한 우리 오리고기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업계 최초로 ‘훈제오리 슬라이스’를 개발해 홈쇼핑에 선보이는 등 오리고기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짜먹는 오리 슬라이스’를 출시해 건강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식품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우진 주원산오리 대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원산오리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누구보다 오리고기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브랜드 교체를 계기로 국내 오리고기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도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프레

⋮

‘직화오리 바베큐’ 신제품 출시

⋮



동물복지 닭고기 선도기업 참프레가 ‘직화오리 바베큐’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직화오리 바베큐’는 국내산 1등급 오리육을 사용해 직화 방식으로 담백하게 구워낸 제품이다.

특히 간편한 조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가정이나 야외활동 등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기존의 훈연방식과는 다른 오븐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빼 단백한 맛을 높여 차별성을 두었다.

또 슬라이스 형식으로 먹기 좋고 직화방식과 그릴마크가 있어 식감과 풍미를 한층 끌어 올렸다. 또한 산야초·오디·뿌잎을 첨가해 깊은 맛을 더했다.

아울러 패키지 디자인 역시 기존방식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급스러운 블랙 지박스안에 150g씩(3개입) 포장해 1인가구도 부담 없이 즐기고 보관이 편리하게 디자인 됐다. 신제품 ‘직화오리 바베큐’는 450g으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 간편하게 조리 가능하다.

조리방법은 포장지를 제거한 뒤 전자레인지에 3~4분 정도 데우거나 에어프라이어에 180℃에서 5분 정도 조리하면 직화구이 본연의 바베큐 맛을 느낄 수 있다.

참프레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직화오리 바베큐’는 국내산 1등급 오리육을 사용했고 단백한 맛을 더해 ‘건강한 차별성’을 두었다”며 “손쉬운 조리방법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 간식 및 간편 안주로 건강함과 편리성 모두를 충족시킬 제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

안병우 신임 대표이사 취임

⋮



지난 1월 3일 안병우 신임 농협사료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 “원가 절감을 포함한 농협사료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병우 농협사료 대표이사의 취임 일성이다.

이날 안 대표이사는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6가지 핵심과제와 실천의지를 발표했다.

첫째, 가격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숨은 원가절감항목 발굴로 가격정책동력을 확보하고 농가에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여 농가 실익증대에 기여하고 사료 시장을 선도하는 1위 업계가 되겠다고 했다.

둘째, 40%를 기록하는 비육사료 M/S에 비해 중소가축은 낮은 수준이므로, 금번 중소가축사료분사 신설을 통해 중소가축사료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셋째, 그 동안 추진 중이었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험농장 운영, 디지털 전환대응 등 신속한 경영의 추진.

넷째, 목우촌, 안심축산, 축산컨설팅 등 축산경제 계통사업과 조화로운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를 높여 나가는 것.

다섯,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역동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안 대표이사는 마지막으로 노사가 화합되고 생동력을 담아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안 대표이사는 1986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하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지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18년부터 2년간 축산기획 상무를 지냈다.